

중동 관광객 잡아라...전남도, 유치 마케팅 총력

두바이 국제박람회 홍보관
자연자원·축제·음식 등 호응
캠투어·친화시설 마련 주력

전남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여행을 대상으로 캠투어를 계획하는 등 중동 관광객 유치를 주력하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박람회장에서 최근 4일간 열린 중동관광박람회(ATM)에 참가해 현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중동국제관광박람회는 전 세계 150여 나라의 여행업계와 관광 유관기관, 언론사 등이 참가해 홍보·관측, 세미나, 문화공연행사 등 중동 최대 기업대기업간(B2B) 국제 관광박람회다.

전남도는 전남관광 홍보데스크를 운

영해 빈센조, 더글로리, 호텔 텔루나, 파친코 등 K-드라마 촬영지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2023 국제행사 연계 관광상품을 홍보했다. 특히 아시아·중동 관광객을 위한 식당, 기도실 현황과 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지난 4일 열린 '한국관광의 밤' 행사에선 각국 30여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극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한편 각 나라 여행업체 관계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자

연자원, 축제, 음식 등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US트래블, FNF코리아, 하킴트래블 등 함께 박람회에 참가한 중동 특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아시아·중동 친화 관광상품 개발 등 공동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 가운데 FNF코리아는 올해 12월 전남 단독 럭셔리 관광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해 여행 비수기에 고부가가치 여행 상품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지 여행사인 알로스타마니(AiRostamani), 알라이즈(AiRais), 무사파(Musafir), 리플렛(Rehlat)과 공동으로 여수 해안 야경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대규모 홍보와 함께 신규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중동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6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여행사, 언론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캠투어를 추진하고, 동시에

기도실을 갖춘 호텔, 포크프리 식당 등 중동 친화적 기반시설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최근 중동 국가에서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문화·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환대로 해외 관광객에게 전남이 '꼭 보고 싶고, 다시 가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익 국회의원,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등 내빈들이 11일 오전 목포시 죽곡동 북항 5부두에서 열린 목포수협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강 시장 "언제 어디서나 안전 광주"

'안전 광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제 6월 16일까지 61일간 실시 중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시민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점검은 지난 4월 14일부터 금남지하도상가는 1991년 준공돼 30

여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강 시장 등은 전기실·기계실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 이동을 지연시키는 제연설비와 화재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셔터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강 시장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광주, 시민의 일상이 평안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길용현 기자

"스마트폰으로 전북 양식장 원격제어"

도해양수산과학원 안도 해역서 고수온·적조 방제시스템 실증

전남도가 매년 반복되는 양식장 고수온·적조 피해에 대응해 방제시스템 실증에 나섰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11일 "안도 보길면 백도리 해역 전북 가두리 양식장에 고수온·적조 방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시험·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로 가두리에 산소를 수시로 공급하는 장치다. 시스템을 설치한 시험구

124칸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 124칸에 양식 중인 전복을 조사해 어장 환경 분석, 성장도, 질병, 폐사율 조사 등 현장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전남에서 연간 생산하는 전복은 2만 3,000t, 6,913억원 규모로 전국 생산량의 99%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소득품종이다.

참전복(북방전복)은 청정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먹고 성장해 품질이 우수하고 육질이 부드러우며 협응성 생물로 여름철 고수온에 취약하다.

기후변화로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내만의 경우 고수온 경보 기준인 28도 이상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져 이로 인한 전복 폐사로 양식 사업자의 시름이 깊다.

이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안도지역은 올해 4월부터 1년간 안도 보길면 백도리 시험 어장에서 효과 검증을 위해 현장 적용 실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품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고수온·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가두리 차광막 설치, 조기 출하, 먹이 공급 조절 등 선제적 조치와 함께 고수온·적조 피해 저감 방제시스템 시험연구의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적극적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개발공사, 개인정보 관리 '최고등급'

전남개발공사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S)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S등급으로 개발공사는 해당 평가 시행 이후 연속해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실시했다.

공통분야 법적무사항에 대한 61개 정량지표와 개인정보 관리 혁신·정책에 대한 6개 정성지표에 대해 5등급(S-90점 이상·A-90-80점·B-80-70점·D-60점 미만)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전남개발공사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평가하는 정량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심층

진단 하는 정성평가에서도 높이 평가 받아 최고등급인 S등급(97점)을 달성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평가 아래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 임직원이 역량을 높이고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행복시책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안정 운영"

김정희 도의원, 조례 발의 "위기가구 지원 등 탄력"

전남도의회가 전남의 대표적 복지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정희 의원(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전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의 기능을 명확화하는 한편 시·군 및 읍·면·동 단위에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복지기동대 구성을 규정했다. 또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하고 필요한 경우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자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시작됐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 4,550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9만5,000여 가구를 지

원했다.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우수상을 받는 등 지역복지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를 기반으로 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우수성과 공유대회 등 복지기동대의 역량 강화는 물론 취약계층 지원과 위기가구 발굴 등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김재철 도의원, 지역소멸 대응특위 위촉

"정부 실질대책 이끌 것"

전남도의회는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지역소멸 대응특위 위원 위촉식을 갖고 각 시도의회 의원 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위는 내년 6월까지 인구감소 등으

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도의회 의장을 수렴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특별법 제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단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 의원은 전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에 대응 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다.

연구회는 귀농·귀촌, 맞춤형 청년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연구용역 등 전남의 인구유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문제를 비롯한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역소멸 해법에 대한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모아 특위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2023 광주인권상 시상식

남을 위한 행진, 새날이 올 때까지

1부 광주인권상 시상식
본 상 | 조우환형(인권변호사, 홍콩)
특별상 | 이란교사노동조합위원장(이란)

2부 축하공연
가수 지세현(보이스코리아, 국가가 부른다)
뮤지컬싱어즈,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등 출연

※ 식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양재마을 페이퍼아트, 손거울 만들기 외)

518기념재단
www.youtube.com/518org

2023. 05. 18. (목) 19:00

5·18민주광장 우천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진행됩니다.

주최 | 주관
518기념재단
The May 18 Foundation